

곡성군, 폭우 앞친데 코로나 덮쳐...수해복구 중단

수해 이재민 30대 남성에 이어 3세 자녀도 확진
어린이집·공무원·주민 등 접촉자 87명 음성
"2차 감염 막자" 1100억대 수해 피해 복구 중단

반년 넘도록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던 전남 곡성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30대와 세살마기 자녀로, 전북 익산의 본가에 임시로 머물다 동생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100억 원대 피해를 입은 곡성지역 수해 복구 작업은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전면 중단됐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오곡면에 거주하는 30대 주민 A씨와 A씨의 세살마기 아들 B군 등 2명이 코로나19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아들 B군은 각각 전남 47번과 49번 환자로 분류됐다.
A씨는 지난 7~8일 500mm가 넘는 집중 폭우로 주택이 물에 잠기자 최근 자녀 2명과 함께 전북 익산의 본가에 임시로 머물다 확진자인 동생(전북 53번)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의 배우자와 또 다른 자녀 1명, 배우자의 부모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중이다.
B군이 다니는 어린이집 관계자와 원생 34명, 이들과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친 공무원과 주민 등 모두 87명에 대한 선별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수해복구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공무원과 경찰, 군인, 민간 자원봉사인력 모두 현장에서 잠정 철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폭염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복구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곡성지역 피해 규모는 6명 사망에 재산피해액만 1129억원에 이른다. 사망자는 산사태 5명과 급류에 휩쓸린 1명 등이다. 재산 피해액은 공공시설 431억원, 사유시설 698억원 등으로 건수만도 3500여 건에 이른다.
'침전강 무릉도원'으로 불린 침실습지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던 곡성군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해 모든 수해 복구가 중단됐다. 사진은 최근 곡성 고달면 앞 주택 앞에서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는 모습.

를 비롯해 친환경농생명센터, 청소년야영장, 위생매립장, 주요 관광시설이 물에 잠겼고, 농경지 700ha가 유실 또는 매몰되거나 침수됐다. 시설하우스도 1700곳에서 100억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곡성읍과 오곡, 죽곡, 고달, 옥과, 입면

등을 중심으로 48개 마을 830가구, 1350여 명이 수해를 입어 이 중 476가구 930여명이 도망치듯 집을 나와야 했고, 아직까지 76가구 122명이 곡성문화체육관 등 4곳의 임시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휴가를 모두

취소한 채 수해 복구에 매달렸고, 주민들과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도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복구가 중단돼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광주 남구, 대촌동 등 15개지역 대상 '부동산특별조치법' 2년 한시적용

광주 남구가 대촌동 등 15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한시 적용한다.
남구는 미등기 부동산을 간편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촌동 일원 15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관련법을 2년간 한시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1988년 1월 1일 기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송정시와 광산군에 속한 구소동과 양촌동, 도급동, 승촌동, 지석동, 압촌동, 화장동, 칠석동, 석정동, 양과동, 이장동, 대지동, 원산동, 월성동, 신장동이다.
적용 범위는 농지 및 임야로,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이 이뤄

진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을 이전 또는 보존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은 뒤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특별조치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민정 기자

대전 확진자 나주 스파 체류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조마조마'

16일~18일까지 사흘간 머물러
17일엔 종일 물놀이 시설 이용
1차 역학조사 전원 음성 판정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전남의 유명 리조트 겸 물놀이 시설에 머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교육계에도 불뚱이 튀고 있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 171~174번 확진자 가족 4명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나주 중흥골프드레스&리조트에 머물렀고, 해당 시설이 방역 조치를 위해 임시폐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범위한 역학조사와 함께 각 학교별로 확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리조트에는 16일 2500명, 17일

1500명, 18일 450명의 이용객이 머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전 확진자 가족은 16, 18일에는 객실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지만 1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리조트 내 물놀이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파의 경우 특성상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방역 당국은 전남 확진자 가족과 동선이 겹친 330명에 대해 1차 역학조사를 벌였고,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검사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날까지 파악된 추가검체 채취 대상자는 1000여 명에 이른다.
특히, 스파 이용자 중 1차 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인원 중 나주지역 학생만 44명에 달하고, 광주 거주 학생들은 물론 나주 이외 전남지역 학생들도 적잖은 것으로 보

여 교육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실제 광주 A중에서는 일부 학생이 가족과 함께 스파에서 물놀이를 즐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반, 같은 학년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역학조사가 나섰고, 해당 학생은 자택 자율격리에 들어갔다.
중학교 2, 3학년 자녀를 둔 B씨도 해당 학교에서 스파 이용자가 나오면서 가족이 모두 검체 검사를 받았다.
학원기도 비상이다.
학원생 중 일부가 물놀이 시설에 다녀온 C, D학원에서는 방학특강을 잠정 중단했고, 학부모들에게도 개인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하는 등 긴급 문자를 발송했다.
광주에서만 사흘간 해당 리조트나 스파를 이용한 시민과 학생이 7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정승호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